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우기전 편집국장:조선근

농어촌 교역자 초청세미나

6월 28일(화) - 7월 1일(금), 충현기도원에서

교회는 전국 농어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국제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으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이런 개방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교회가 먼저 지도적인 위치에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농어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교육과 훈련과 기도 그리고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농어촌 지역교회의 성장과 복음전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과 지역향상 개발, 도시교회와의 연대 등을 목적으로 6월 28일(화)부터 7월 1일(금)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농어촌교역자 초청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지교회 및 지원교회 목회자와 농어촌을 살리려는 의욕있는 목회자, 신학적 기초가 있고 보수적인 사람 중에서 100 여명을 초청하여 3박 4일간 실시하게 되는 초청세미나는 모든 경비를 교회가 부담하게 된다.

'살아나는 농어촌과 교회성장'이라는 주제와 역대하 7장 14절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주체성구로, 찬송가 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를 주체찬송으로 정하고 3박 4일간 강의와 분임토의, 부흥회, 친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김창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중 목사 외에 임석영 목사(고덕중앙교회), 한경호 목사(호저교회), 노우호 목사(원지교회), 갈자연 목사(왕성교회), 임성환 목사, 유창무 목사와 풀무원 공동체 설립자인 원경선 장로 등이며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의 역할, 농어촌의 현실과 전도라는 주제로 분임토의가 진행되게 된다.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교육훈련원 부원장 강순용 장로, 지도:교육훈련원 지도 김광국 목사)가 구성되어 모든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주기철 목사 순교 50주년 추모예배

4월 21일(목), 충현교회당에서

일제의 신사참배 거부로 옥중 순교한 소양(蘇羊) 주기철 목사의 순교 50주년을 맞아 범교단적으로 기념사업과 추모예배가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 한경직, 방지일, 김창인(충현교회 원로목사), 정진경, 조항목, 김준곤, 조다윗, 객션회, 김선도, 김장환, 신성중(충현교회 당회장) 목사 등 초교파 교계인사 백여명으로 구성된 '주기철 목사 순교 50주년 추모예배 및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선택 목사)는 오는 4월 21일(목) 오후 7시 충현교회당에서 순교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기념사업으로 평양산정현교회 재건과 주기철 목사 기념 장학사업, 문서사업 등을 추진한다.

21일의 추모예배에서는 김창인 원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서울 산정현교회와 서초 산정현교회 찬양대에서 특별찬양 등이 있다.



주기철 목사는 1897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 오산학교에서 이승훈, 조만식 선생에게 배웠다. 1925년 평양신학교를 졸업,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 31년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는데 앞장 서기도 했다. 1936년 평양산정현교회에 부임한 뒤 신사참배를 반대 44년 평양형무소에서 옥중순교하기까지 다섯번이나 투옥됐다. 주 목사는 한국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신앙의 선배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준 증인이자다.

새벽기도회(1부) 반주자를 기다립니다!

오전 4시30분에 시작하는 새벽기도회 1부 반주자로 봉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 희망자는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남성중창단 조직

찬양위원회는 남성들로된 중창단을 조직하기로 하고 그 준비에 한창이다. 4월중 대원을 확보하고 5월부터 주1회 연습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남성중창단은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간이나 당회장 목사 부흥회, 국내외 농어촌 등을 다니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성가합창제 참가

찬양위원회는 한국교회 음악협회가 5월 21일(토) 햇빛회관에서 주최하는 성가합창제에 우리교회 아멘찬양대가 참가하기로 하고 그 준비와 계획에 착수했다.

4월 24일은 장애인 주일, 저녁찬양예배시 수화찬양

4월 24일은 전국교회가 장애인주일로 지키는 날이다. 장애인 주일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특별취급 당하는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자 1989년에 범교단적으로 4월 넷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정했다.

우리 교회는 오래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간 중에 조기아동교실을 운영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 예배다부, 지체, 정신장애아를 위한 교회학교 사랑부를 열어 교육하고 있다. 장애인주일은 특별히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예배다부의 수화찬양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관한 사진전시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및 연속기도

청지기훈련 - 4월 14,15일 양일간: 4,5,6교구
24연속기도- 11교구

94년도 청지기 훈련이 시작됐다. 금주의 훈련 해당자는 14일(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충현기도원에 도착하여 오후 9시부터 저녁집회가 시작되어 다음날(금요일) 오후 4시에 수료식을 하고 4시 30분에 기도원을 출발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 복장은 충현훈련복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접수는 교육국에 비치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11교구가 17일 오후 9시부터 25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12교구가 이어서 하게 된다.



94 청지기훈련 94 청지기훈련이 시작됐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3개 교구씩 충현기도원으로 들어가 다음날 오후까지 실시하는 청지기훈련은 8차례에 걸쳐 5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참석자들은 말씀의 은혜와 친교를 통한 만남을 갖고 매우 만족하는 모습들이었다.

최

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성찬식, 즉 성만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만찬을 영어로 유카리스트(Eucharist)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의 뜻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성만찬에 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성만찬의 기원

성만찬은 구약시대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유월절이 모형이라면 성만찬은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란 6월에 있는 어떤 절기가 아니라 지나간다 [逾越: pass-over]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월절(逾越節)을 과월절(過越節)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열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 가리라(pass-over)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았더라도 믿지 아니하는 애굽사람의 집에는 천사가 와서 장자들을 전부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애굽사람의 장자가 그날 저녁에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동물 중에서도 첫번째 태어난 초태생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강박한 바로 왕이 두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를 해방절로서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절기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 절기가 되면 그들은 새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첫째가 불에 구운 양고기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있게 될 어린 양 예수, 즉 희생양이 된 어린 양 예수의 모형입니다. 둘째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당시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이유는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라"고 했습니다(고전 5:8). 곧 누룩이 들어갔다는 말은 순전하지 못하며 부패되었고 진실성이 없으며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쓴 나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쓰라린 노예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연결을 안시키면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2. 성찬식의 의미

셋째로 성찬식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성만찬을 가지신 후에 오늘날 같은 성찬의식이 바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잔(agape meal)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자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예배 후에 그것을 나눠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각집에서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오는 반면에 가난한 집에서는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흥청망청 먹고 따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소외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취해서 분위기를 흠어놓고 망해를 주게 되니까 아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애잔에 중지하게 되고 동시에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날 행하는 성찬식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그 자리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찬식은 천국잔치의 연습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

다. 성찬식은 그 천국잔치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3. 본문 26절의 해석

본문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

충현강단



최후의 만찬 (마 26:26-35)



신성종

<목사·당회장>

이 내 몸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구절이 성찬식에 문제가 된, 교회를 분열시킨 구절입니다. 첫째로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하시는 분이데 이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고 그랬으니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석하여 화해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해석은 두 가지의 문제를 유발합니다. 우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를 딱지 말라, 피를 딱지 말라는 성경 말씀(신 12:23-25)에 저촉됩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기독교인은 색인종이라는 로마정부의 오페라 핏바네로 기독교인이 색인종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장하는 천주교의 화해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로 마틴 루터는 공존설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 자신이 산후로서 절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 해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딱은 딱이고 포도즙은 포도즙이라 고백합니다. 그것이 살과 피로 변한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공존설을 주장했습니다. 셋째로 그 후에 쾰렌리라는 사람이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떡이 살과 피로 변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This is my body)라고 했을 때 is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This is my body라고 할 때에 is를 의미한다(signify)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넷째로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히 상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상의 의미가 있다. 바

로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대속의 은혜를 그 시간 기억하고 지체 의식을 체험하는 뜻으로 성찬식을 가져 왔던 것입니다.

4.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가져야 할 태도

(1)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

우리가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결코 희생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끝난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봉헌 순서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참여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가 136장을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라고 묻습니다. 2000년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 거기에 너 있었느냐? 십이인은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믿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잘못

가끔 보면 이렇게 중요한 성찬식에 참여를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로 교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차리를 받아서 일정기간 동안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신의 경우는 예외입니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찬식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찬식에 불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귀한 성례를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겁니다. 셋째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참고: 요 13:8). 그러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성찬식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3) 성찬식에 참여할 때 가져야 할 태도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듣는 말씀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로 구속의 은혜를,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셋째로 그 다음에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공적인 표시가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에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배려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세몬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네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성찬식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세몬 베드로의 결심에 찬 그 말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문 베드로처럼 "다 주를 배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네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큰 소리 당당 치지만 그러나 한 주간에 몇 번씩,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배반합니다. 정말 믿을 없는 자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행위는 배반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바제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권능을 힘입고 말마다 주님의 축복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같아”

이 준 우

(전도사, 에바다부 지도)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뒤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19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치른 후 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약 100년전 선교초기에 선교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장애인 선교는 오랫동안 암흑기를 보내다가 장애인 복지가 시작된 80년대에 이르러 장애인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장애인 선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 교회도 등장하게 되었다. 더구나 1989년 한국장애인선교단체 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지난 첫 주를 장애인 주일로 제정하였으며 1990년 한국개신교단협의회에서도 4월 넷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가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주일만 생각해 봐도 제정만 되었지 실제로 지키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장애인 주일이란 무엇이며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키는지 알아보자.

1. 장애인 주일이란 무엇인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 이웃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교회적 책임을 느끼며 성도들로 하여금 장애인 선교에 참여토록 하는 특별 주일이다.

2. 장애인 주일은 왜 필요한가

1) 장애인 실태와 현황을 알자

세계보건기구는 장애인 인구를 전체 인구의 10%로 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5%가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10%까지 추정되는 100-400만의 장애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성인병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인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이 없다. 장애 인구에 대한 신뢰할만한 통계도 없으며 취업 가능한 연령에 있는 장애인 중 60-70%가 무직이며 서울시 취업 장애인 중 77%가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의 공적부조(생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가 20% 정도이다. 취학 연령에 있는 특수 교육대상 중 75%가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 교육을 받는 장애 유아는 1-2% 정도이다. 또한 재활 의료기관(20여개)이나 복지시설(이용시설 10여개, 수용시설 120여개)도 크게 부족하며 국민들의 그릇된 장애인관과 편의시설 미비(국공시설, 교통수단)도 장애인들의 일

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정부의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인 실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감당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랑에 필요한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해소하자

장애인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무관심과 편견 때문이다. 장애인을 놀려대고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역사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건축되려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 분위기가 나

90% 정도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등의 사회환경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인을 장애인 후보자 또는 예비 장애인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다.

3) 장애인들은 복음의 황무지에 있다

전도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의 전도 대상은 모든 족속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어야 한다. 더구나 미가서 4장 6-7절, 스바냐 3장 19

이 기록이 있다. 농아인과 정신 지체인의 경우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그들을 위한 예배가 없고 맹인과 지체 장애인의 경우 그들을 위한 시설과 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출석이 어렵다. 또한 일반 신자들의 차별대우는 장애인의 신앙생활을 막는다.

복음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통 중에 있는 장애인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다 나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3. 장애인 주일은 이렇게 보내자

1) 설교

1년에 한번 장애인 주일만이라도 장애인이 주제가 되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장애인 선교기관이나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를 찾아가면 설교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이 장애인을 바로 이해하고 장애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성경적 장애인관을 가르쳐 교인들이 장애인과 만날 때 인격적인 존중을 하도록 한다. 성경적 장애인관이란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창 1:27) 대로 치음을 받았으며(창 4:11) 성령의 전(고전 6:19)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약 2:1)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므로(마 25:40)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다.

2) 특별 프로그램

우리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부와 에바다부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주일을 맞으며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4월 21일 장애인 주일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에바부가 중심이 되어 수화찬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서로가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3) 사진전 등

장애인에 관한 사진전을 가져 장애인 선교, 교육에 관한 일반인의 이해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 사실 장애인 주일이 있다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지만 기독교계 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에 이런 주일도 제정된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애인이나 정상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적인 부주의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할 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원인을 살펴보면 80-90% 정도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등의 사회환경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인을 장애인 후보자 또는 예비 장애인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다.

빠진다고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대모하는 것이 비밀비해하다.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몇년동안 대문 밖에도 나와보지 못한 장애인도 있다.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기능을 익혔지만 사회의 편견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은 장애인의 문제라기보다 일반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장애인의 노력과 의지로 사회에 통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반인이 갖는 선입관과 편견 그리고 일반인 중심의 물리적 환경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적인 부주의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할 남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원인을 살펴보면 80-

절, 누가복음 14장 21절, 7장 22절,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장애인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임을 보여준다. 또한 구약성경에 나타난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레 19:9, 23:22, 신 24:19/주수법, 신 14:28-29/십일조, 레 25:1-7, 출 23:10-11/안식년, 신 16:11-17, 26:11/종교적 절기, 레 12:8, 14:21, 27:8/제사법)과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눅 2:7/출생, 막 11:3-10, 눅 18:35-43/사역)과 가르침(요 13:34-35/세계명, 눅 10:25-37/이웃사랑)을 보면 우리는 특별하게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중 기독교인은 약 5% 미만이라고 한다. 특히 농아인은 1-2%만

초·중·고교

학생·학부모 상담
학원전도회에서, 매 주일

본 교회 성도중 초·중·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의 모임인 학원전도회에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민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가정, 교회 생활 중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을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현직 교사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상담을 신청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년간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이고 상담심리학을 석사과정으로 공부한 교사들도 있어서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문제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감싸 주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희망의 빛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밀의 철저한 보장을 위해 담임 교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성격문제, 부적응 문제, 인간관계, 신앙문제, 이성문제, 학업성적, 가정불화, 교우관계, 비행문제, 건강문제, 진학 및 진로 적성문제, 기타 청소년의 고민거리 등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제에 따라 필요하다면 성격·적성검사 등을 해서 분석하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상담에 응하고 있다.

교육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본당, 교육관, 선교관 출입구 1층 벽에 걸려 있는 신청함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상담 신청서 용지에 간단하게 기록하여 함 속에 넣으면 연락처를 보고 상담요원이 연락하여 시간을 약속할 수 있다.

상담장소는 충현교회 본당 지하 찬양대 연습실 옆 110호에서 한다.

사랑부,
차량 봉사자 찾고 있어

교회학교 사랑부(지체, 정신장애아동 교육부서)에서는 학생을 각 가정에서 데려다가 예배와 분반교육을 시킨 다음 다시 각기 집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예배에 차량으로 교회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수송하는데 봉사할 운전기술을 가진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부에서 차량봉사자는 주일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봉사해야하기에 주일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많은 차량봉사교사가 확보되어 오전, 오후로 나누어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차량(봉고, 베스타 등 중형)까지 제공해 주시면 더욱 좋겠으나, 단지 차량수송만을 담당해 주어도 학생교육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수송중의 교육과 보호도 훌륭한 교회학교 교사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있는 헌신할 교사(수송)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8일(월) 한국기독교 환경대책협의회 정기회 설교, 18일(월), 20일(수)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 설교(충현기도원), 21일(목) 주기철목사 순교50주년 추모예배 설교(충현교회)
· 신성중 목사님 : 18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19일(화)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 설교(충현기도원), 20일(수) 한양 기독교실업인회 조찬기도회 모임 특강
2. 충현의 각 교회학교와 구역마다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사 배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며 성수주일하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4.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사 깨끗한 삶이 되게 하소서.
5.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는 지난 3월 1일 출국하여 미국 L.A, 아프리카의 케냐, 호주 등에서 부흥회 및 사역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지난 4월 9일 귀국했다. 사진은 호주한인교회에서 부흥회와 교역자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 징검다리 ♣

흥상이나 호상인 장례식

이 인 우

(목사, 제3교구, 초등3부 지도)



배편 주일을 은혜 가운데서 맞이하고 집에 쉬고 있을 때였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 소리가 울렸다. 때는 저녁 10시 50분경. 장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 즉시로 권도사와 함께 상계동 백명원 영안실로 달려가 보았다. 가보니 젊은 여성도가 슬픔을 당한 것 같았다. 책상에는 장례가 있다는 말에 우리 교구에 연세가 많은 드신 분 중에 한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0대의 젊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사교는 토요일 밤에 군에서 장교로 복무중인 부군이 차를 몰고 오다가 절수로 사고를 당함으로써 우리 교구 집사님의 출가한 둘째 딸에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영안실에서 입관을 할 때 보니 온몸은

깨끗한 그대로인데 다만 머리, 충격을 받아서 주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매우 놀랐다. 사람이 어찌 저러도 쉽게 할 수 있는게, 매체 삶을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성도는 겨우 30세의 나이로 사랑하시는 부군과 내줄된 딸을 두고 있는데 데려가시니 이 어떤 연고입니까?" 나로써는 위로의 말을 찾을 길이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식을 인도하였는데, 전경 어머니이신 집사님은 고향으로 인해 장례식에는 전혀 참석하지 못했고 친정 아버지이신 집사님과 세째 식구들만을 중심으로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 그칠로 집사님의 덕을 위로차 방문했다. 슬픔을 당한 집사님들(친정 아버지과

어머니)은 슬픔을 꼭 참고 위로 예배에 참여하였고, 예배 후 차유로운 대화 중에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 슬픈 가운데서나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었다.

집사님의 가평은 1남 2녀로서 단란하고 매우 행복한 가정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업도 잘되고, 아들과 두 딸에게 제수도 헌신하고 모두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했고, 두 딸님도 꽤 어려운 일없이 출가를 시키고 막내 아들도 꽤 괜찮은 학장에 잘 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웠던 것이 주를 위해 좀더 헌신하여 구역예배에 열심을 보이진 못했고, 시댁 식구들을 권도하지도 못했고(사실 따님의 사택은 철거한 불교가람이었다) 사위도 권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집사님의 사업도 중국과 자주 거래를 하는 사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전도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러간 딸을 통해서 크게 회개하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교회와 구역에 위해, 또 주의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장례식 때에 시댁 식구들이 찬송가와 성경을 대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 이번이 마지막 인생중 최후일 것이라는 집사님의 말을 들을 때에는 더욱 그러했다.

장례! 장례란 그대 좋은 말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과 같은 장례에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나, 인간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님은 여전히 생리학과 역사학을 어떤 장례식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깨닫게 되었다. 장례가 있다는 전화를 처음 듣고 영안실로 갈 때의 마음과 장례후 위로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의 집을 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그대 무게는 것만은 아니었다.

"주여! 오늘도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역세례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들었네이다."

이 난은 교역자들에게 그들의 목회현장에서 보고 느꼈을 것을 적는 한입니다.